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약전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적비와 명제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시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평양약전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립된 약전기계제품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현실에서 큰은

을 나타내고있으며 수요도 대단히 높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는 약전기계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제품들에 대한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제품개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식의 새롭고 현대적인 약전기계제품을 연구개발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창조적열정과 지혜를 합치고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새제품연구개발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주제적인 관점과 립

장에서 기성기술문헌에도 없는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새 기술의 창조자, 개척자가 되어 최첨단약전기계제품개발과 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조종간을 역세게 틀어잡고 하늘로 날아오른 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훈련명령관철의 길에서 런마해온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찬바람이 불어치는 훈련장에 오래도록 서서여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의 함로에 비행운을 새겨가고있는 비행사들의 훈련을 주의깊게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이 모두 녀성들인데 불리한 기상조건속에서도 전투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한다고,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히 좋다고, 당의 의도대로 높은 비행술을 소유하고있다고 치하시였다.

녀성비행사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비행훈련을 힘있게 벌려 하늘의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신성한 령공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

고있는 미더운 비행사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가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행훈련지도를 마친신 다음 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역세계 자라난 녀성비행사들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녀성비행사의 노래》를 창작하여 부를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들의 침실, 비행조종련습종합강실, 식당, 부식물창고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과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서 정치사상교양과 문화정서생활 및 후방시설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부부비행사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보위가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부부전투비행사들을 찾아볼수 있을것이라고,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애국자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군공을 세워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미국은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우리의 전략군부대들은 화력단위별로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켓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발사된 로켓트들은 발사지점으로 부터 설정된 동북방향으로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비행하여 정해진 목표수역들에 정확히 도달함으로써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최상수준의 명중확률을 과시하였다.

특히 로켓트발사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비행궤도와 목표수역에 대한 사전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세운데 기초하여 진행된 우리 전략군 화력단위들의 이번 훈련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항해질서와 생태환경에 사소한 영향도 줄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다종다양의 첨단로켓트들의 성능이 남김없이 검증된 이번 훈련은 날강도 미제가 온갖 추종세력들을 끌어 모아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에 광기를 부리고있는 첨예한 환경속에서도 끄떡없이 병진로선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 천배해 주고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끝수에 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로켓트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높이 솟구쳐오르는 그 순간부터 악의에 찬 비탄에 매달리며 못되게 놀아내고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부득불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트발사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

원래 도발이란 남을 고의적으로 해칠 흥심을 가지고 저지르는 불순한 행동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무려대고 우리를 걸고들기 전에 도발의 개념이나 정확히 아는것이 필요할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행동은 레외없이 우리의 령공, 우리의 령해, 우리의 령토를 위주로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정의의 자위적행동이다.

우리 전략군의 이번 로켓트발사훈련 역시 레외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무슨 《저장도도발》이요,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요 하는 당치 않은 꾀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우리의 로켓트발사때문에 큰 피해라도 본듯이 아무렇게나 치고있다.

그때 우리가 발사한 로켓트의 파편 한조각이라도 미국본토나 주변나라들에 떨어지고 미국합선이나 비행기에 자그마한 흠집이라도 났단 말인가.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 손가락이 깨끗한가부터 먼저 보라고 하였다.

굳이 도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주동이 되어 우리를 겨냥하고 벌리는 강도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며 국무장관 케리와 같이 그 누구를 《가장 폐쇄적인 나라》, 《사악한 곳》, 《악의 나라》라고 혈투는 비렬한 망발이다.

제명에서 진행되는 정의로운 자위적훈련을 《도발》이라고 매도해대는것이 파렴치한 미국식판단이고 남의 나라 땅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감행하는 저들의 침략전쟁행위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며 《넉넉적》이라고 정당화하는것이 바로 철면피한 미국식기존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에게 걸어오는 무모한 도발이 도수를 넘게 되면 우리 방어형로켓트들의 훈련발사가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공격형로켓트발사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로켓트발사를 구실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고 격화시켜왔다.

무장간첩성과 첩찰기들을 떼없이 우리 나라 령해와 령공깊이 들이밀어 준전시상태를 빚어낸것도 미국이고 천연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계획적인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는것으로 이 땅에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최근에만도 우리의 인공지위성 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유엔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는것으로 정세를 전쟁점경으로 치닫게 하였다.

이번에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로켓트발사훈련을 구실로 그 무슨 《이란식제재》요, 《보다 첩저한 봉쇄》요 하면서 또다시 긴장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길에 들어서려고 획책하고있다.

여기에는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북남대화와 조일접촉의 기미가 나타나고있는데 대한 미국의 배아픈 속내도 크게 작용하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의 흐름을 강도높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가로막고 또다시 남조선지역을 핵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살인무장장비전시장으로 만들어놓아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켜보려는것이 심술궂은 미합중국해방군들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미국은 우리의 정상적인 로켓트발사훈련을 구실로 침략전쟁연습의 도수를 높이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가 더는 통할수도, 묵인될수도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3.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로켓트발사훈련을 계기로 우리 핵문제까지 집요하게 걸고드는 어리석은 꾀

변을 함부로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로켓트발사뿐 아니라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북핵포기가 선행되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느니, 《북이 먼저 움직여야 미북대화도 있고 미북관계도 있다.》는 등의 요설을 내돌리고있다.

이것은 한갓 무지이기 전에 황당무계한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정》을 바라고 보유했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우리 민족모두를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자위적보검이다.

그 누가 인정하면 존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없어지는것이 우리의 핵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시비를 하든, 인정을 하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더우기 대화에 목이 메고 관계개선에 현혹되어 정정당당한 로켓트발사훈련을 중지하고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포기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무엇때문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중요와 보복의 총검을 버리고있는가를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위적인 로켓트발사훈련을 걸고들면 들수록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중요와 분노는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맹정하게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

주제103(2014)년 3월 5일
평 양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 《미국은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를 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마쓰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조선의 전략군부대들이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켓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발사된 로켓트들은 동북

방향으로 안전하게 비행하여 정해진 목표수역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로켓트발사훈련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로켓트발사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중상꾀바니야를 벌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비난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미국무

장관 케리가 조선을 《가장 폐쇄적인 나라》, 《사악한 곳》이라고 한 망발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도발이라고 하면서 그는 여기에는 최근 조선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북남대화와 조일접촉의 기미가 나타나고있는데 대한 미국의 배아픈 속내도 크게 작용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미국의 CNN방송,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도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쫓기모임 진행,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나무심기에 참가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

었다. 각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백화만발하고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러갈 애국의 일념을 안고 나무심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2일 식수절을 맞으며 중앙식물원 수목원, 만경대혁명사적지, 모란봉, 4월15일소년백화원 등 각지에서 쫓기모임들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생, 중앙기관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

이날 온 나라를 수밀화, 원림화하기 위한 철도성일군들과 종업원들, 각 도시, 군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쫓기모임과 나무심기가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식수절을 맞으며 근로자들이 나무들을 심었다.

— 모란봉에서 —